

2022 문화도시부평 포럼

공공 지원방식의 전환 모색

2022. 7. 29.(금) 14:00~17:00

장소 부평생활문화센터 1층 다목적홀

대상 문화도시와 공공지원에 관심 있는 누구나



행사 소개

부평구는 2021년 1월 제2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후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대상 사업인 삼삼오오 작은모임 지원, 꽤 쓸모 있는 도시실험,
예술가 대상 사업인 도시에술연구소,
공간 대상 사업인 부평별곳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문화생태계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득 부평에서 다양한 지원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지원받는 입장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지원 담당자의 재량과 한계에 갇혀
폐쇄적인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원 흐름에 대해 설명해주실 전문가와
부평 내외 공공 지원기관의 지원 설계자, 인천 공간 지원사업 담당자,
지원을 직접 받고 계신 현장의 여러분을 포럼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질문과 답을 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요

주제	공공 지원방식의 전환 모색
일자	2022.7.29.(금) 14:00-17:00
장소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1층 다목적홀
대상	문화도시와 공공지원에 관심 있는 누구나
내용	시민, 예술가, 공간지원 방식의 특성과 변화
문의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시민팀 032.500.2152

행사 식순

구분	일정	내용	진행/발표
	14:00-14:01 1'	개회	김유정 부평구문화재단 시민팀장
	14:01-14:05 4'	인사말	황유경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좌장 고동희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1부. 도시, 예술지원 분야의 지원 방향			
발제	14:05-14:20 15'	도시지원의 흐름과 변화	유상진 전 경기도청 문화전문관
	14:20-14:35 15'	문화예술 지원의 구조와 방향	정광렬 문화가치연구소 대표
토론	14:35-14:55 20'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1	김기훈 무용가 장한섬 플레이캠퍼스 대표
	14:55-15:00 5'	휴식	
2부. 시민지원 분야 특성과 변화			
발제	15:00-15:15 15'	마을공동체 지원의 특성	이성수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장
	15:15-15:30 15'	사회혁신사업·시민지원의 시작 과 시도	원민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토론	15:30-15:50 20'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2	이용우 동네야놀자 사무국장 유형민 부평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15:50-16:00 10'	휴식	
3부. 인천 공간지원의 서사와 사례			
발제	16:00-16:15 15'	인천문화재단 점점점 공간지원 사례	강혜림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팀 과장
	16:15-16:30 15'	인천서구 공간거점 주민문화활동 지원사업 사례	최영재 인천서구문화재단 시민문화팀장
토론	16:30-16:50 20'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3	권은숙 생활문화공간 달이네 대표 강현구 시인의 사회 대표
	16:50-17:00 10'	폐회	김유정 부평구문화재단 시민팀장

목차

발제 1	도시지원의 흐름과 변화	유상진 전 경기도청 문화전문관	7
발제 2	문화예술 지원의 구조와 방향	정광렬 문화가치연구소 대표	17
토론 1	예술가의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	김기훈 무용가	25
토론 2	기획자의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	장한섬 플레이캠퍼스 대표	27
발제 3	부평 마을공동체 지원제도의 변화	이성수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센터장	31
발제 4	전주시 사회혁신 사업과 시민지원의 시작과 시도	원민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센터장	49
토론 3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 - 동네에서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	이용우 동네야놀자 사무국장	59
토론 4	민간단체의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	유형민 부평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63
발제 5	인천문화재단 공간지원 사례 -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 점점점	강혜림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팀 과장	65
발제 6	인천서구 공간지원 사례 - 공간거점 주민문화활동 지원사업	최영재 인천서구문화재단 시민문화팀 팀장	71
토론 5	기획자의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	권은숙 생활문화공간 달이네 대표	83
토론 6	예술가의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	강헌구 시인의 사회 대표	87

발제 1

도시지원의 흐름과 변화

유상진
전 경기도청 문화전문관





도시 문화예술자원의 분배정의

질문) 누구에게 플랏을 주었을 때 가장 정의로운가?

1. 플랏을 만든 아이
2. 플랏을 잘 부는 아이
3. 플랏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선택은?
아르마티아 센의 선택은?



도시 문화예술자원의 분배정의

질문) 플랏을 누구에게 주었을 때 가장 정의로운가를
누가 결정하는가?

1. 부평시 및 시의회
2. 부평문화재단 및 문화도시 추진센터
3. 부평시 기반 활동 예술가
4. 부평시민



도시 문화예술자원의 분배정의 문제

질문) 플롯을 누구에게 주었을 때 가장 정의로운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1. 부평시 방침 및 시의회 의결
2. 권위 높은 문화예술 전문가 심사
3. 부평시 기반 활동 예술가 대표 모임 논의
4. 공론장 및 민주적 절차(투표, 추천)



도시 문화예술자원의 분배정의 문제

질문들의 답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도시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도시의 문화이자 문화도시의 목적



도시지원 변화 추세



정부의 도시지원 문화예술 정책

(법정) 문화도시

관광도시

문화특화지역조성

지역문화활력촉진

동아시아문화도시

* 유네스코 창의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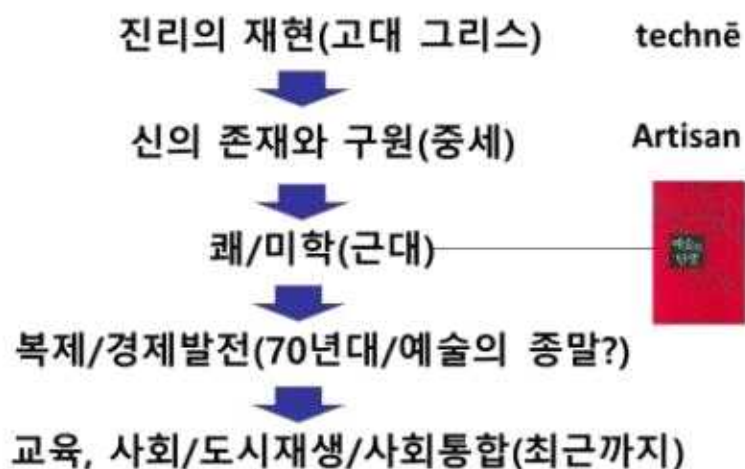
* 상호문화도시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역사 속 예술의 역할 변화





정치, 경제, 사회의 주요 변화

민주화, 시장화, 다원화

정치민주화	자본시장개방	개별성
경제민주화	민영화	지역화/세계화
사회민주화	시장경쟁력 강화	성평등

문화민주화(문화민주주의), 문화산업/예술산업, 문화다양성



도시 문화예술 지원 목적 및 근거 변화

문화예술진흥법(1970년대~2000년대):
예술진흥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2010년대):
문화기본권 보장, 지역문화진흥



도시 문화예술지원의 목적

1. 도시성장과 도시민 삶의 질 제고
2. 총체적 도시문화의 발전 추구



문화도시 ≠ 예술도시



문화도시의 예술과 예술가 역할

1. 도시성장과 발전 기여
2. 시민의 문화적 역량 제고
3. 도시문화발전 선도
4. 예술혁신, 사회혁신 선도



문화도시의 예술과 예술가 지원

예술지원 = 예술가 지원

예술지원 ≠ 예술가 지원



부평 문화도시의 예술과 예술가 지원

예술가지원

1. 근거: 헌법/예술인권리보장법
2. 주요내용

○ 제38조(예술인의 자유와 권리)은 예술 분야에 자유를 보장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주권의 근간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 예술인은 「영리기업법」 제4조에 따른 영리기업 아닌 국민이자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적로서 중요한 공헌을 한다 한다.
 ○ 예술인은 노동자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 예술인은 교향합선 예술 향상에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폭행·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술인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3. 지원방법: 상시지원, 예술가의 자기예술 지원
 - 소액다건 계기성 지원, 지원편의성 강화, 예술가 상호 심사 선정
 - <부평구 예술인권리보장 조례> 제정
 - <부평구 예술인지원센터>운영



부평 문화도시의 예술과 예술가 지원

예술지원

1. 근거: 문화기본법/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
2. 주요내용
 - 부평구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술지원
 - 예술적/사회적 혁신, 예술 공공성의 예술지원
3. 지원방법: ① 기획지원(주제 및 목적 제시)
 - 집중과 선택, 지역사회 및 예술계 제시 활동 지원
 - 권위있는 전문가 심사, 선정
 - 예술성/사회성평가>행정평가=예술/사회 비평
 - 기업후원연결(ESG)/창작공간제공/연속지원



부평 문화도시의 예술과 예술가 지원

예술지원

3. 지원방법: ② 시민후원지원
 - 텀블벅 등 크라우드펀딩 성공 예술활동 매칭 지원
 - 기업 및 시민 후원 약정 시 매칭 지원
 - 예술가 선택 자율 활동 지원



문화도시 문화예술지원의 새로운 사회계약(New Deal)

과거/현재

- 과거의 예술 후원자:
왕, 귀족, 교회,
자본가
- 현재의 예술 후원자:
국가 및 공공행정
- 소유로써의 예술
- 하향식 지원
- 행정, 엘리트 주도



미래

- 미래의 예술후원자:
시민과 지역사회
- 공유로써의 예술
- 상향식 지원
- 보충성의 원리



부평 문화도시의 미래상

문화 분권과 자치의 실현



문화자치의 도시, 부평!

발제 2

문화예술 지원의 구조와 방향

정광렬
문화가치연구소 대표



목 차

1. 문화예술 지원구조
2. 문화예술 지원구조 현황
3. 문화예술 지원구조 개선방향
4. 맺음말

3

1. 문화예술 지원구조

문화예술 재정 기본특성

■ 문화예술 재정의 특성

- * 문화예술 정책은 지원정책 중심의 특성
- *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재정은 정부 재정의 1.21%에 불과하지만, 이중 보조금 비율이 약 64%로 보조금 규모는 전체 부처 중 5위
- * 타 부처는 의무지출, 대규모 지출이 많지만, 문화는 소규모 지원이 많아 사업건수 가장 많음.
- * 지나치게 영역별, 기능별 칸막이가 심하고 지원체계/전달체계가 복잡

■ 지역문화지원사업 전달체계 유형

- ①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자치단체 → 지역의 간접보조사업자 → 최종 사업수행자
- ② 문화체육관광부 → 중앙의 1차 간접보조사업자 → 지역의 2차 간접보조사업자 → 최종 사업수행자
- ③ 문화체육관광부 → 중앙의 1차 간접보조사업자 → 최종 사업수행자
- ④ 문화체육관광부(기금운용기관) → 지방자치단체/최종 사업수행자

■ 문화재정 지원기관

- ① 문화체육관광부, ② 기금운용기관,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 ④ 지자체, ⑤ 지역의 공공기관

1. 문화예술 지원구조

지역문화지원사업 전달체계

➤ 지역문화지원 전달체계도(국고)



지역의 자체 지원체계는 별도

2. 문화예술 지원구조 현황

■ 기능별/유형별 분산된 지원기관

- * 중앙에는 칸막이가 심한 기관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
- * 전문성/다양성을 이유로 공급자 관점의 지원프로그램과 중복 발생
 - 복/융합 시대에 기관별 유사 지원 프로그램 존재
- * 수요자, 지역의 관점에서는 다수의 지원 프로그램 연계, 정보의 비대칭성 해결 필요
 - 사례 : 영국 ACE의 통합적 지원시스템

■ 전달체계의 복잡성

- * 공급자 중심의 상이한 지원지침으로 인한 규제 논란
- * 지원에 따른 책임과 권한의 불명확 : 과도한 통제 vs 관리 책임 미흡
- * 전달체계 과정에서 거래비용(간접비용)의 발생 및 최종 수요자 전달 지원의 축소

■ 프로젝트 중심 지원에 따른 문제

- * 1년/프로젝트 단위 지원에 따른 지원 효과의 불명확(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 * 공공지원 위주 지원인 우리 여건상 정부의 개입이 구조적으로 가능
 -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실현 구조적 불가능
- * 프로젝트 중심에서 한정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문화예술인/단체간 지나친 경쟁

2. 문화예술 지원구조 현황

• 지원프로그램 결정 및 지원심의 프로세스

- * 성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수요자의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지원 프로그램이 결정
 - 정보와 준비가 가능한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 지원예산의 미집행에 따른 전체 재정의 피해
- * 단기간 지원심의에 따른 문제
 - 효율성과 투명성은 담보가 가능하지만, 공정성과 타당성은 상대적으로 미흡
 - 영국 ACE는 중장기 계획에 따른 지원프로그램의 목표와 방향이 결정되며, 장기 지원심의는 회계연도 1년 전에, 수시 지원심의는 연중 지속
 - 지원결정 지연에 따른 수요자의 사업기간 단축 및 한정된 시장의 경쟁
- * 지원심의 목적
 - “심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는 우리나라
 - 심에서 탈락한 사업에 대해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영국 ACE
- * 지원 목표의 불명확
 - 부족한 재정의 보조 위주 : 한정된 자원을 다수의 대상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신청액/필요액 보다 대폭 감액하여 지원
 - 미국 NEA는 해당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전체 예산 규모 유지가 지원의 전체 조건
 - 이러한 소액 다건식 나눠주기 문제는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문제점으로 발생

2. 문화예술 지원구조 현황

• 지원심의 기준 및 지원심의 방법

- * 지원심의 공통기준
 - ① 단체의 역량(활동실적) ② 지원프로그램 우수성(기대효과) ③ 사업계획서의 충실성(예산포함)
- * 지원심의 유형별 추가 기준
 - ④ 사업정체성 ⑤ 협력/운영체계
- * 지원심의 점수 부여 기준
 - 등급별 점수 부여 기준이 있지만, 심의위원별로 차이가 많아 공정성 논란
 - 지원심의 기준별로 계량화 점수 부여 방법 도입 필요
- *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과도한 기획역량 요구
- * 지원심의 목적
 - “지원심의 총평”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는 지원 대상의 우수성에 대한 객관성 논란
 - 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심의결과를 작성하는 영국 ACE

3. 문화예술 지원구조 개선방향

• 지원심의 기준 및 지원심의 방법

- 지원심의 공통기준
 - ① 단체의 역량(활동실적) ② 지원프로그램 우수성(기대효과) ③ 사업계획서의 충실성(예산포함)
- 지원심의 유형별 추가 기준
 - ④ 사업정체성 ⑤ 협력/운영체계
- 지원심의 점수 부여 기준
 - 등급별 점수 부여 기준이 있지만, 심의위원별로 차이가 많아 공정성 논란
 - 지원심의 기준별로 계량화 점수 부여 방법 도입 필요
-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과도한 기획역량 요구
- 지원심의 목적
 - “지원심의 총평”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는 지원 대상의 우수성에 대한 객관성 논란
 - 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심의결과를 작성하는 영국 ACE

3. 문화예술 지원구조 개선방향

패러다임의 변화



3. 문화예술 지원구조 개선방향

지원구조 개선 기본방향

문화예술 지원 구조 개선 기본 방향

- 문화예술 자율성 보장과 구조 혁신
- 간막이식 비효율적 지원/전달체계의 혁신
- 한정된 자원의 경쟁에서 협력과 연대 체계 강화
- 사각지대 없고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맞춤형 지원
-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원칙 실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다년간 지원 위주(3년) 확대
 - * 프로젝트 지원은 창작활동 및 발표에 정부 개입이 가능
 - * 예술활동의 주기, 지속가능성, 예술지원의 자율성 획기적 제고
 - * 예술인/단체의 역량개발, 달성목표 중심의 성과계약 평가, 예술활동 내용은 자율적 결정
 - * 예술지원의 공정성 제고

창의 융합과 연계된 청년문화예술 정책

- 진입장벽이 높은 청년 예술인을 위한 종합적 지원
 - * 예술인 복지, 다년간 지원, 연대/협력/창작공간, 발표공간/유통 등 연계 지원
- 청년예술인들의 문화정책 경험 확대를 위한 참여 기회 확대
- 청년들의 창의성을 위한 수요자 참여기획형 프로그램 지원
- 창의/융합과 연계하여 경쟁력 및 전문성을 가진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3. 문화예술 지원구조 개선방향

지원심의 개선방향

지원구조 혁신 관련 개선방향

- 지원 전달체계의 혁신과 관련한 수요자 관점에서 전달체계 단순화 및 연계
- 지원신청 및 프로세스의 통합 연계
- 연대와 협력을 위한 연계협력형 사업의 확대
- 성과계약제 확대 및 지원사업자의 자율성 보장

지원심의 개선방향

- 지원신청서의 단순화/모델화
- 지원심의위원의 بانک 및 사전교육제도 강화
- 사업준비 기간 고려 지원신청 기간의 앞당김 및 심의 기간의 확대
- 문화예술계의 여건과 연계한 전문심의위원 제도 및 사후평가제 단계적 확대
- 정성 지원심의의 기준의 계량화 및 세부평가기준의 확대
- 모든 지원심의 결과에 대한 통보
- 지원심의 결과에 대한 투명성 및 의의제기 확대

3. 문화예술 지원구조 개선방향

지역문화재단의 대응전략

12

공공기관 혁신 및 전달체계 개선 대응

- 예술정책, 문화복지,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지역주민 참여와 거버넌스, 문화시설/행사 운영 등 복합 문화행정체계에서 효율적 운영체계 재정립
- 지자체 및 광역문화재단과의 연계 및 역할 체계 재정립
-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제도화
 - * 공모사업, 지자체 위탁사업, 고유사업과의 관계 및 정책 우선순위
- 재정위기 및 정책전환기 지역문화재단별 정책 우선순위 및 특성화 정립
- 지자체 타 분야 문화행정 연관 영역과의 거버넌스 및 전문성 확대
-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연계한 지역문화재단의 대응체계

지역문화의 생산지 발전을 위한 전략

- 지역별 특성 있고 차별화된 문화예술 생산을 위한 장기적/종합적 지원
- 다년간 선택과 집중 지원 정책 전환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체계 정립
- 지역간 연대와 협력 정책
 - * 지역문화 지원사업에서 생산(production)과 공급(provision)의 연계를 위한 교류 협력
- 창의/융합 문화정책 전환기에 이를 위한 허브로서 지역문화재단의 지원/대응체계
- 타 분야와의 연계,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의 가치 제고를 위한 대응체계

13

4. 맺음말

- 기본적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화예술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 보다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음.
- 한정된 공공자원을 지원받는 것이므로 문화예술이 아닌 다른 분야, 문화예술 내에서도 다른 지원 사업 보다 지원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야 함.
- 문화예술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한 논거를 문화예술계 내에서 스스로 제시하여야 함.
- 재정위기, 공공기관 개혁의 흐름 속에서 문화예술 지원도 새로운 지원 패러다임과 구조의 혁신 필요
- 대한민국이 한단계 도약하고,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에서 전 지역의 문화가 발전하고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문화정책 전환, 혁신과 창의, 규제혁신 필요

토론 1

예술가의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

김기훈
무용가



1. 공공 지원 제도에서 보완될 부분

- 공연장과의 지속적인 연계
- 문화예술 전문가와의 매칭을 통해 작품 심화 발전에 도움
-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매체(SNS, 유튜브 등)를 활용한 전폭적인 홍보
- 창작 작품의 아카이브를 위한 영상 기록 및 평론 등 지원
- 무용가 인력풀 플랫폼 구축 및 일원화
- 작품 저작권 관련 보호 제도 마련

2. 지역 예술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 창작 지원금 내 안무비 비중 강화
- 유휴 공간을 활용한 연습실 지원

3. 예술가가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

- 지역 내 학생(초,중,고,대학교) 및 시민들을 위한 정례 워크숍 운영
- 지역 내 활동을 위한 조건 및 행정 절차 간소화
- 구청장 및 각 유관기관장들과의 소통의 장 마련

토론 2

기획자의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

장한섬
플레이캠퍼스 대표



이번 포럼 주제는 ‘공공 지원방식의 전환 모색’이다.

기획자로서 위 주제를 다루려면 두 가지를 우선 조명해야 한다. 첫 번째는 ‘문화도시’ 부평은 부평구가 지향하는 이상이다. 그런데 현실은 ‘공단도시’ 부평의 관성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문화도시부평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부평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부평의 집단기억¹⁾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비전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필자가 알기로는 부평구는 현재 ‘음악도시 부평’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고, 과거 부평미군부대 에스컴시티(ASCOM CITY)를 주제로 확장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공단도시’ 부평이라는 산업도시에 ‘병참기지’ 부평이라는 제국(주의)의 ‘식민도시’라는 정체성까지 중첩된다. 거기에 1997년부터 시작한 부평풍물대축제는 30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농촌공동체’ 부평 이미지를 어느 정도 구축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표면적으로는 다원성이 풍부한 것 같으나 새로운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화합물이 아닌 부평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섞여 있는 혼합물로 혼재할 뿐이다. 기획자 입장에서는 부평구가 지향하는 문화 공공성이 공단도시(산업화)의 성능과 질주에서 탈피한 성찰과 정주를 가능케 하는 ‘시민계급’ 형성인지, 제국(주의)의 식민도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체를 위한 ‘시민교육’ 차원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농촌공동체의 부흥을 위한 ‘전통재생’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모두 필요한 요소이지만 제한된 예산과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와 경중(輕重)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자는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에 따라 기획하고 추진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기획비용을 계산한다. 그 때문에 (정책의 지속성과 홍보를 위하여 이벤트도 필요하지만) 문화도시를 내세운 이상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철학과 비전이 우선 필요하다²⁾. 철학과 비전이 없는 곳에서 굳이 가치와 의미를 생산하려고 기획하지 않는다. 오히려 철학과 비전이 부재하면 양념과 빵가루가 많고 화려할수록 좋은 기획으로 평가받기에, 결국 대중매체와 중앙언론에 노출되는 인기인 섭외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을 (문화예술의 생산지가 아닌) 유통대리점으로 전략시킨다. 결과는 지역문화예술인은 인기인이 되고자 지역을 떠나 시장이 편중된 서울로 가는 악순환을 가속시키고 지역문화생태계는 고사 위기를 맞는다.

1) 일제의 경인철도 건설로 계양구의 부평향교에서 지금의 부평역으로 도시의 중심이 이동했다.

2) 기획자는 예산 편성보다 정책의 방향성과 지속성을 먼저 본다.

두 번째는 ‘공공=공짜’라는 공식 탈피이다. 문화도시는 축제와 이벤트만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문화복지는 인권(시민의 자존감)을 위한 것이지 문화상품의 무료공급이 아니다. 문화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시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산업과 이를 지탱할 지역문화생태계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음악대학이 없는 도시가 인천이다. 그럼에도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과 부평풍물대축제를 기반으로 인천은 음악도시를 표방한다. 근대 개항부터 교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합창단 문화와 클럽으로 형성된 문화생태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인천 중·고등학교의 전통 있는 음악동아리는 거의 해체 상태이고, 음악문화를 선도한 클럽도 지대상승이라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폐업 내지 지역을 떠난 상태이다.

부평구는 노동자 계급과 그 자녀들이 태어나 자란 도시이기에 문화예술의 인프라도 부족했고, 접근성 또한 좋지 못했고, 이에 대한 학습과 훈련도 부족했다. 2000년대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직접 관람권을 구매하여 공연장에서 연극이나 무용을 관람하거나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는 것은 일상의 여가라기보다 여유가 있을 때 소비하는 사치재로 인식되었다.

문화적 습속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부평구는 60만명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임에도 2000년대 중반 한겨레문고, 2020년에는 썩크빅문고가 폐업했다³⁾. 부평구청 옆에 있는 북구도서관은 일제의 행정구획화를 여전히 상징하고 있다. 이런 곳에서 문화적 자부심과 정체성이 형성되기는 어렵다.

결론은 이렇다. 이제는 공공의 지원방식을 생산자에서 시민(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문화시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평문화 또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과의 연계가 필수다. 유치원 시기부터 공연장에 와서 줄을 서서 공연티켓을 직접 1000원을 주고 사는 법부터 가르치고, 좌석 번호를 찾아서 앉는 법과 휴대폰 전원을 끄는 예절부터 교육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들이 관객이 되어 지역문화생태계의 주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연 후 관람평을 공유하는

3) 부평문고는 거의 문구점으로 연명하고 있다

문화가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인천문화계의 비평문화와 비평매체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매개자와 매개체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공공 지원방식을 시민 참여의 유인책을 개발하는데 투입할 때이다. 시민에게 관람료 할인에 국한된 서비스 제공보다 공연에 관한 공적 발언의 기회와 함께 문화예술생태계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생산자들에게도 긴장과 함께 선의의 경쟁구조를 만들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감사를 쓰는 시민을 육성하는 정책과 예산이 필요하다. 이들 또한 다시 관객이 되어 지역문화생태계의 주축이 될 수 있다.

위 내용은 원론적인 제안이고, 기획자로서 현실적인 제안을 하자면, 예산을 늘려서 과감한 투자가 어렵다면 대신 물리적 시간을 늘려서 제공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부연하면, 사업의 공고와 확정 등이 점차 늦어지고 있다. 선정과 예산 집행이 4월부터 시작되면 상반기 사업은 진행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문화예술 단체들의 쏠림현상으로 대관 신청과 관객 유치에 소모적인 경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문화복지차원에서 문화예술인의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고, 문화예술인들의 기타소득세가 4.4%에서 8.8%로 인상되었지만, 예산은 늘어나지도 않았고, 물가는 오르는데 출연료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제작환경이 어려워지자 제작자의 개체 수가 줄고 있다. 연기자과 연주자 등 문화예술의 직접생산자는 언제나 공급과잉이라 할 수 있지만, 제작자가 없으면 결국 연기자과 연주자가 직접 제작의 영역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자본과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부분 도태된다. 또한 실체와 본질보다 이미지와 마케팅이 좌우하는 시장주의가 작동하다보니 기초예술 육성보다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도구화로 문화예술이 악용되기 일쑤이다⁴⁾.

공공 지원방식을 생산자 중심으로 하다보면 가시적인 성과물과 계량적 수치를 요구하고, 이는 단기적으로는 공공을 저해하고 무엇보다 기다려주지 못한다. 시민(소비자) 중심을 위한 공공 지원방식을 지역문화생태계 차원에서 고민할 시점이다. 문화예술의 성과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4) 인천동구는 동구청소년 극단과 동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쓰고 버렸다.

발제 3

부평 마을공동체 지원제도의 변화

이성수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센터장



FIRST STEP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과 특성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어떤 조직들이 포함 될까.

사회적기업의 모태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목적	조합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수요 부응	기업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 결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 업(기업) 참여를 통 한 탈빈곤
관련법	협동조합기본법 (2012)	사회적기업육성법 (2007)	마을기업육성지침 (법안 발의 준비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SECOND STEP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가지로 나뉘는 기업법(2012)의 협동조합

구분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신고	시도지사 허가	주 사업 소관 중앙부처장 인가
사업	업종분야 제한 없음	공역사업 40% 이상
경영공시	무무사항 아님 (조합원수 2000이상 총자산 총액 30억 이상 의무)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의무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이상
배당	배당가능(출자, 이용실적)	배당불가
청산	경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귀속
유형	사업자, 직업, 소비자, 다중이해관계자	다중이해관계자



PLUS STEP+

마을기업 제도로 활용해보세요

마을기업이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가진 단체로서 지역의 문제를 마을 회원들이 해결하는 기업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1차년도 : 5천만원
 2차년도(재지정) : 3천만원
 3차년도(고도화) : 2천만원

THIRD STEP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사회적기업의 독립적인 기준 요건

1. 조직형태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법인이어야함.
2. 유급근로자	신청 전월말 기준 유급 근로자 1명 이상 고용(단, 예비는 해당 없음)
3. 의사결정구조	외부인사,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를 이사회에 포함(단, 예비는 해당 없음)
4. 정관	1.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근거 명시 2. 이익발생시 수익 배분 및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 조항 명시
5. 재무구조	신청 직전월 6개월 동안 영업활동 수입이 노무비 대비 50%이상 (단, 예비는 해당 없음)

2022년 10월 10일

THIRD STEP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요건 2

부라 사회적기업은 어떤 목적목표를 달성할까?

1. 일자리제공형

인증 : 신청전월 6개월 동안 평균 유급근로자 3인 고용하고,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예비 : 신청전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1인 이상, 그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취약계층은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자 등 / 고용은 주 15시간 이상 정규직)

2. 사회서비스제공형

(서비스)

인증 : 신청전월 6개월 동안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예비 : 사업계획서 상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단, 사회서비스 업종에 해당해야 함)

3. 혼합형

인증 :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20% 이상 /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20% 이상
 예비 : 사업계획서 상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20% 이상 /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20% 이상

4.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 지역 자원 활용 지역 취약계층 고용비율 20% 이상 / 사회서비스수혜 지역 취약계층 20% 이상
 나형 :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관련 수입, 지출 40%이상(지역문제 및 해결방안 제시)
 다형 : 지역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지원- 관련 수입, 지출 40% 이상

5. 창의, 혁신형

(혁신)

인증 :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 (사업실적)
 예비 :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 (사업계획서)
 @예시분야: 공정무역, 도시재생, 친환경 등



THIRD STEP

(예비) 사회적기업 대표적인 지원제도

의정적 사회적기업들이다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자격요건별 200만원 또는 250만원	2년, 1명	3년, 2명
	일자리창출 지원: 인증(자정 이후 신규 고용 최저인건비 40%(취약계층 60%))	2년	3년
사업개발지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인증/자정 이후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비 지원	2년 동안 신청가능	3년동안 신청가능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의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불가	4년가능
공공기관 우선 구매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 우선구매촉진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일부	가능
세제지원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50%감면, 재산세 25% 감면	불가	가능

통합공모

2022. 1. 17. (월) ~ 2. 4. (금) 18시까지

부서명	총사업비	사업유형	지원금액
자치행정과	180,000	일반형	4,000
		성장형	5,000
		기획형 (전환마을)	8,000
		기획형 (공간 활성화)	10,000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1,000
평생교육과	18,000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3,000
	40,000	마을학교(주민주체형)	4,000
	105,000	마을학교(기관 단체형)	5,000
		마을학교(마을기획형)	8,000
여성가족과	30,000	여성친화도시조성	5,000
도시재생과	39,000	일반형	5,000
		기획형	8,000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50,000	일반형(문화도시부평)	2,000

통합 컨설팅

2022. 1. 17. (월) ~ 1. 21. (금) 10~16시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2층 대회의실

22.1.17.(월)	22.1.18.(화)	22.1.19.(수)	22.1.20.(목)	22.1.21.(금)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마을학교)	평생교육과 (우수동아리 우수프로그램)	문화도시센터	평생교육과 (마을학교)	평생교육과 (우수동아리 우수프로그램)
여성가족과	도시재생과	여성가족과	도시재생과	문화도시센터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현실에 볼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자치행정과

- ★ 일반형 (3년미만 공동체) , 400만원 이내
- ★ 성장형 (3년이상 공동체) , 500만원 이내
- ★ 기획형
 - 전환마을, 800만원 이내
 - 공간활성화, 1,000만원 이내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현실에 볼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평생교육과

- ★ 심화학습형 : 특정주제 학습 탐구 동아리
- ★ 사회참여형 :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 환원
- ✓ ★ 문제해결형 : 지역문제 대응책 연구.실천
- ✓ ★ 취업준비형 : 전문성향상자격증취득
일자리창출

✓ 가산점 항목!!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현실에 볼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평생교육과

부평구 평생교육기관(단체)의
우수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활성화

관내 평생교육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현실에 볼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평생교육과

- ★ 평생교육 진흥 프로그램
- ★ 취약계층 교육프로그램
- ★ 권역별특성화 프로그램
- ★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평생교육과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ex) 문화, 예술,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체험, 인성교육,
인문학, 마을, 생태환경,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등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평생교육과

부평마을학교

- ★ 주민주체형 (22차시 이상), 400만원 이내
- ★ 기관·단체형 (24차시 이상), 500만원 이내
- ★ 마을기획형 (40차시 이상), 800만원 이내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현실에 풀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평생교육과

★ 주요사항

- 부평구 관.내 교육장소 의무확보
- 참여학생 10명이상, 1인 1개 마을학교 참여
- 주강사비 1시간 4만원(초과3만원)
- 보조강사 1회(2시간이상)3만원
- 임차료는 지원금의 20%이내 편성
- 간식비는 지원금의 5%이내 편성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현실에 풀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여성가족과

누구라도 행복한 소통과 배려의 도시

평온한 도시

평등한 도시

평안한 도시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여성가족과

★ 평온한 부평 (함께 돌보는 도시)



★ 평등한 부평 (나누고 참여하는 도시)



★ 평안한 부평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도시재생과

- ★ 일자리 창출
- ★ 지역상권 활성화
- ★ 지역상권 확산 프로그램
- ★ 보행환경 개선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도시재생과

<사업구역: 부평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내·외>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도시재생과

★ 일반형 (도시재생), 500만원 이내

★ 기획형 (상권활성화), 800만원 이내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도시재생과

★ 주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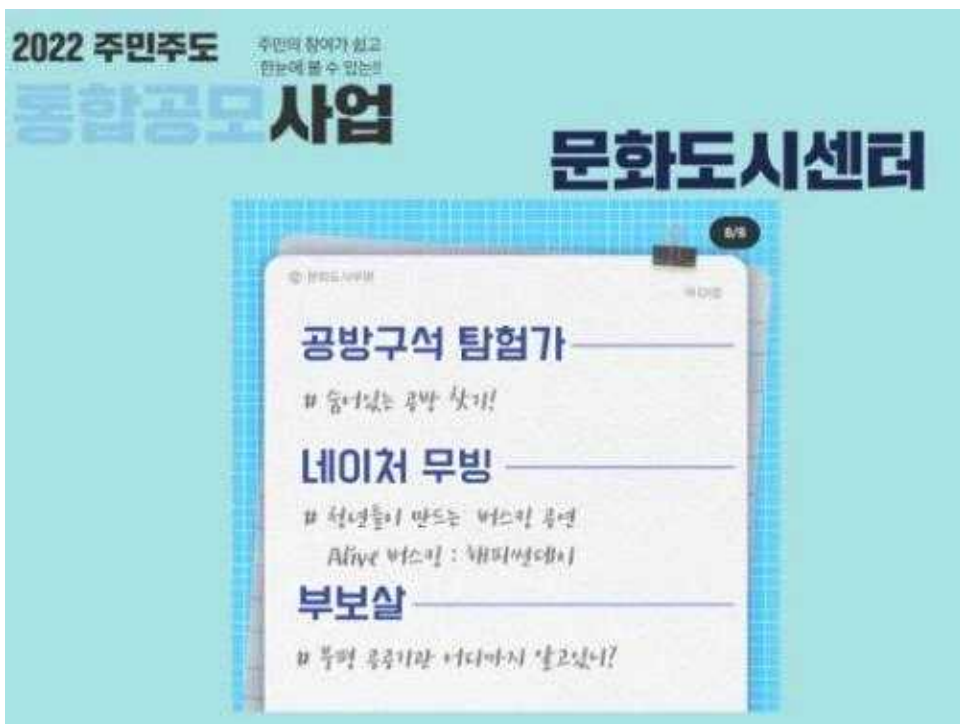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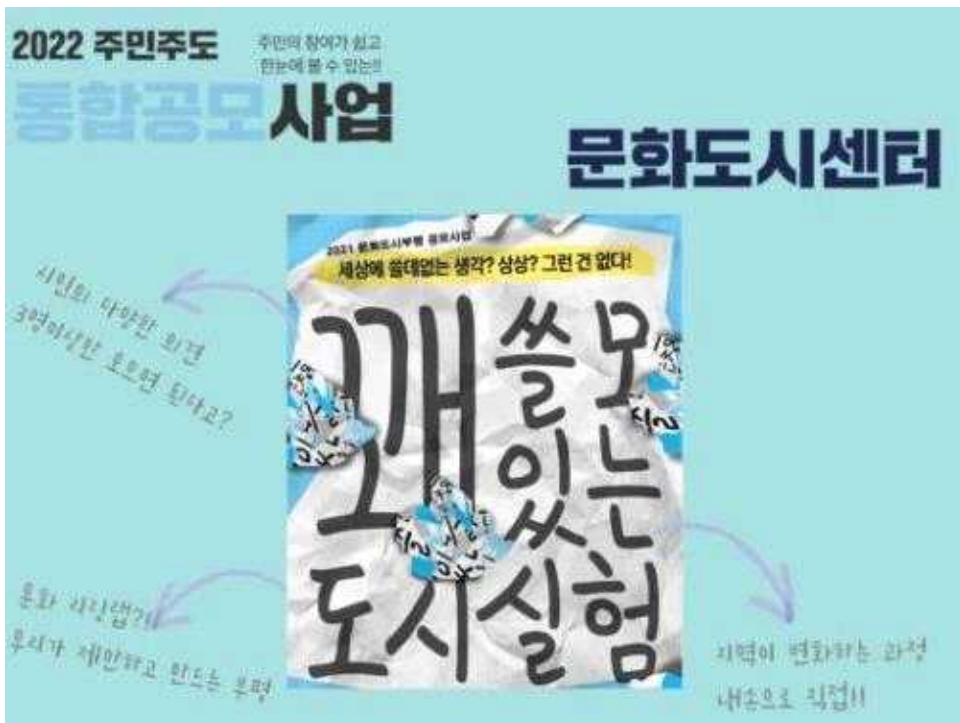
- 단체란? 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 등록단체
- 대상지? 부평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내
- e나라도움 사용 필수!!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1-1 문화예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문화예술과 사회발전의 관계에서 문화예술은 경제적 혜택과 금전으로 치환되지 않는 비금전적 혜택 등 다양한 성과를 “가져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 사회발전을 “진흥”시키고, 사회의 효과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요소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식과 행동변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바람직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음. (유네스코, 2012)

▶ 문화예술은 사람들의 생활양식 등에 영향을 미치고, 근본적 가치관과 의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회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며 사회의 성장에 필요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음

1-2 문화예술 기업/조직 공동체

○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조직으로 영리기업과 비영리 조직 중간 형태의 제 3섹터라고도 한다. 즉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 간의 중간 형태로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이라고 지칭함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경제기업은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공연, 음악, 미술, 종합예술, 전통문화, 지역문화 등과 같은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지칭하고 있음

2-1 문화예술 분야 인천시 사회적기업 현황

○ 2020년 12월 기준 인천시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은 전체 241개소, 인증 사회적 기업 170개소, 예비사회적기업 71개소로 나타남

○ 2020년 12월 기준 인천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은 문화예술 20개소(예비 6개소, 인증 14개소), 출판 영상, 도서 11개소(예비 6개소, 인증 5개소), 교육서비스 24개소(예비 11개소, 인증 13개소)로 나타남

▶ 세부업종을 보면 문화예술은 공연기획 및 행사대행 6개소, 공연예술 3개소, 문화예술 기획, 공연 3개소 등이며, 출판 영상, 도서는 영상물 제작 4개소, 도서판매 3개소이며, 교육서비스는 공예 및 숲 체험 3개소 등이 높게 나타남

2-2 문화예술 분야 인천시 협동조합, 마을기업 현황

○ 2020년 12월 기준 인천시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558개소, 일반협동조합 460개소, 사회적 협동조합 98개소로 나타남

○ 2020년 11월 현재 인천시 마을기업은 전체 60개소로 예비마을기업 4개소, 육성형 마을기업은 56개소로 나타남

○ 2020년 12월 기준 인천시 사회적기업(236개소47) 총매출액은 189,936,822천원이며, 평균 매출액은 825,812천원, 중위값은 342,335천원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평균매출액 210,246천원, 출판 영상, 도서 730,150천원, 교육서비스 184,188천원으로 나타남

○ 2020년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을 시장별로 구분해보면 문화예술은 공공시장에서 90,362천원, 민간시장에서 119,884천원, 출판영상, 도서는 공공시장에서 140,741천원, 민간시장에서 589,409천원, 교육서비스는 공공시장에서 98,924천원, 민간시장에서 85,264천원으로 나타남

▶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민간시장 대비 공공시장 매출액 비율을 보면, 인천시 전체 사회적기업 37.7%, 문화예술 43.0%, 출판영상, 도서 19.3%, 교육서비스 53.7%로 문화예술 및 교육서비스 업종은 공공시장 의존성이 높은 편

2-3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조사

○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운영 결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52.9%), 협력, 협업 증대(40.1%), 대외적 인지도 제고(21.1%), 조직문화 개선(20.6%) 등이 성과로 나타남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2020년 인천시 재정심사에 참여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에서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지표3)에서 문화예술 분야 11.4점(15점 만점)으로 나타나 같은 결과를 지지하고 있음

▶ 협력, 협업 증대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지역 내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수준을 측정기준으로 배점은 5.7점(10점 만점)으로 같은 결과를 지지하고 있음

▶ 조직문화가 개선은 비영리 문화예술 임의단체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면 조직이 안정화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결과로 나타남

2-4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책 개선사항

○ 지원사업 개선사항은 인건비 확대 및 인건비 연장, 사업개발비 확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사회공헌 및 문화마케팅 등으로 나타남

○ 향후 필요한 부분은 협력 및 파트너십을 통한 비즈니스 확장,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기준 마련, 문화예술 분야 성과지표 개발, 공공기관 지원 등으로 나타남

○ 대표자 간담회에서 "프로그램 공모시 적절한 인건비 책정이 필요", "프로그램기획비 지원이 필요",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단계적 로드맵 필요", "컨설팅 중심 심사방법 개선", "심사기준 명확성"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음

▶ 향후 인천시 사회적 경제기업은 인천문화재단에게 "현재 문화예술교육은 강사비만 지원하고 있는데, 기획비,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훈련비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공헌 사업(찾아가는 문화활동)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조직과 후원기관, 기업 등 메세나 활동의 플랫폼 역할이 필요하다", "그동안 성과가 좋은 사업을 스케일업 방식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재단 내에 사회적경제 전담직원이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3-1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책 결론 1

-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에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정부의 재정지원기간이 끝난 사회적기업들에게 계속 지원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 중 '재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확대가 필요함
- 비영리임의단체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면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 내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수준이 활발하고, 조직문화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영리임의단체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
- 인천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정부 의존성이 높고, 평균임금도 낮은 편으로 민간기업 및 공기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함
- ▶ 최근 기업들의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ESG)가 경영화두로 등장하여 이 부분과 연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함
-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연결시키는 플랫폼 개발이 필요함

3-2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책 결론 2

- 인천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많은 편으로 나타나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 현재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4개 국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천사회적 금융 활성화 공동기금(I-SELF)에 지방공기업 및 인천문화재단이 참여하여 사회적 금융 확대가 필요함
- 단순한 공모사업보다는 협력 및 파트너십 활동 통한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예술분야 사업이 필요하며, 문화예술 분야 성과지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 공모시 적절한 인건비 책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공모심사를 컨설팅 심사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 문화예술 조직과 후원기관, 기업 등을 연결이 가능한 매세나 창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동안 성과가 좋은 사업은 스케일업 방식으로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발제 4

전주시 사회혁신사업과 시민지원의 시작과 시도

원 민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센터장





목차

- 1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소개
- 2 현장과 행정의 중간에서
-중간지원조직
- 3 지원사업 방식의 변화와 혁신
-네 가지 제안



Part 1.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소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국정과제 8-3 | '17년 발표
사회혁신 기반강화 및 생태계 조성

“ 정책 공동생산자로서 주민 참여와 다양한 분야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혁신 기반·생태계 조성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력 제고 ”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계화수업
성과관리

지역의제 기반
혁신사업 추진

공모 선정 자치단체



주민 주도 지역혁신활동 지원

(국비 50% 경상보조 연 20억 기본 3년)

- 공간기반 혁신활동 지원 (집주, 대관 등)
- 지역밀착 생활실험 지원 (코넬랩 등)
- 저연학대 + 거버넌스 컨퍼런스, 포럼 등
- 혁신사례 연구 (지역문제해결 아이디어)

지역혁신 거점공간 조성

(지방비 50% 설계 리모델링 등)

- 118건 강원 춘천시 | 전북 전주시
- 119건 대전광역시 | 제주특별자치도
- 200건 충남 천안시 (가년) 울산광역시
- 지자체 공유자 (평균 면적 3,220㎡)

Part 1.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소개

미션/비전/핵심가치



+

CORE VALUE



01

시민주도성

시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지원



02

연결과 협력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다양한
주체와의 연결 및 네트워크 지원



03

적극적 다양성

동일한 사회구조 속에서 사뭇다른
대상이 지니는 지평도를 발굴·지원



Part 1.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소개



Part 1.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소개

연혁

2018. 11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전주시사회혁신센터))

2019

- 1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2월 201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3월 201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4월 201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5월 201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6월 201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7월 201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8월 201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9월 201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10월 201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11월 201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2020

- 1월 202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2월 202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3월 202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4월 202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5월 202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6월 202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7월 202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8월 202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9월 202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10월 202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11월 202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12월 202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2021

- 1월 202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2월 202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3월 202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4월 202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5월 202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6월 202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7월 202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8월 202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9월 202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10월 202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11월 202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12월 202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Part 1. 전주사회혁신센터 소개



Part 1.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소개



Part 1: 전주사회혁신센터 소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서울특별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합니다

 ① 사회혁신 거점 공간 운영 및 활성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민기행 및 자치체 사회혁신기 거점 공간에서 시민들과 공동으로 문제 지원 ※ 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지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가지원센터	 ② 성별을 실천 선민회 재구성 민간선출을 위한 선민회 재구성 성별을 실천을 위한 지원 ※ 선민회 재구성 지원 ※ 선민회 재구성 지원 ※ 선민회 재구성 지원	 ③ 혁신활동 지원 (지역 일터 생태 실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시도 지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가지원센터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가지원센터
 ④ 자변해대·의제활동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거버넌스 구축 지원 ※ 자변해대·의제활동 지원 ※ 자변해대·의제활동 지원	 ⑤ DB구축 및 아카이브, 홍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거버넌스 구축 지원 ※ DB구축 및 아카이브, 홍보 ※ DB구축 및 아카이브, 홍보	 ⑥ 자원 역량 강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거버넌스 구축 지원 ※ 자원 역량 강화 ※ 자원 역량 강화

Part 1. 전주사회혁신센터 소개

[illegible]



Part 2, 현장과 행정의 중간에서

<중간지원조직 등장의 배경>

| 사회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의 변화

1 1980년대 영미 중심의 민영화 속에서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등으로 비영리단체 등이 국가의 사회서비스 공급에 참여

· 한국사회 역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 유형 중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의 약 42%를 차지

2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 경향은 보다 큰 범위를 포괄하지만, 한국사회 중간지원조직 논의는 그 중 일부에 집중

· 민관협력 분야에서 행정의 기능 및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 성격에 국한하여 중간지원조직 논의가 집중되는 경향

3 중간지원조직의 성장배경은 다양하지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변화라는 틀에서 유사(장병순, 황원실, 2018)

· 영국은 공공서비스 민영화 도입을 통해 기반조직(Infrastructure Organization), 우산조직(Umbrella Organization) 등장

· 미국은 지역자선단체(Charity Organization Society)의 중복적 활동을 조율 지원하는 기반조직으로 출발하여 NPO센터 네트워크 등으로 본경화(조철민, 2016)

· 일본은 시민단체 지원을 위한 NPO법(특정비영리활동추진법) 제정 이래 설립된 NPO 지원센터 등으로 출발(송두원, 2011)

© Saehyeon Yu, Saehyeon's PowerPoint

현장과 행정의 중간에서

<개념>

- 행정과 시민 또는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 거버넌스(협치)의 고리, 다양한 시민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희망제작소, 희망이슈, 2016)
-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영역 조직의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조직(서울연구원, 중간지원조직 공익활동 역량 강화방안, 2019)
- 다원적 사회의 공생과 협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역사회와 NPO의 변화와 수요를 파악하고 인재, 자금 정보의 자원제공자와 NPO의 중개, 포괄적 의미에서는 각종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조직(중간지원조직 현황과 과제에 관한 조사보고서, 일본 내각부)

© Saehyeon Yu, Saehyeon's PowerPoint

현장과 행정의 중간에서

<역할>

주요 역할	세부 역할
연결자 (coordinator)	networking 교육·세미나 bridging 자원(인력, 물적) 총괄 연결 coordinating 액터 간 이해 조정 참여 촉진
지원자 (supporter)	incubating 인큐베이팅 assistance 기술적 지원과 공간 지원 capacity building 활동가 및 조직 역량 강화
생태계 조성자 (enabler)	archiving & information sharing 지식·정보 수집 및 공유 research 조사연구 생태계 advocating 의제 설정 및 홍보 대변

서울연구원, 중간지원조직 공익활동 역량 강화방안,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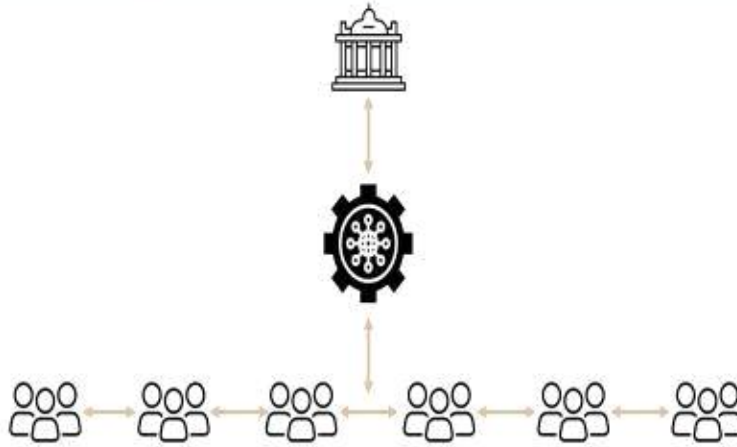
주요 역할	세부 역할
중개자	- 의사결정 정책과 절차의 집행자 - 정책 모니터링, 피드백 - 정책계단
조정자	-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형성 - 이해관계자 간 자원의 연결과 조성
역량 구축자	- 정보수집 및 제공 - 구성원들 정보공유여 환경 - 조사연구 - 상담 및 컨설팅

한국사회(연대)정책 지원본부(합의) 제1차 사회적경제 공동추진 사업(2014년 10월 ~ 2017. 4월 기간)

© Saehyeon Yu, Saehyeon's PowerPoint

Part 2.

현장과 행정의 중간에서



“현장/시민에게 더욱 가깝고 싶은, 행정과 현장/시민의 중간 어디쯤”

자율성과 독립성 약화, 사업의 혁신성과 시민성 기반 약화, 구성원들의 불안전성과 같은 단점(문제점)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짐

© Saabyeol Yu, Saabyeol's PowerPoint



지원사업 방식의 변화와 혁신

▪ 진입장벽 낮추기

- 신규 주체(청년 등)들의 등장 / 무정산
- 시민들로부터 유입되는 새로운 방식과 흐름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실험 지원(브랜딩 등)
- 결과·성과의 정리가 아니라 과정의 기록

▪ 유관기관과의 사업 트랙 만들기

- 사업공유 및 정보교류, 공동사업 모색
- 참여 시민 의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 다양한 지역사회 이슈 공동 대응

네 가지 제안

▪ 수혜자에서 공급자로

- 사업 기획과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
- 참여 효능감 제고

▪ 안정적이고 유연한 근무 조건 조성

- 사업의 유형과 현실에 맞는 고용 가이드라인 적용
- MZ세대들의 등장
- 체계적인 HR 운영 및 관리

© Saibyeol Yu, Saibyeol's PowerPoint

지원사업 방식의 변화와 혁신

사회혁신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총 참여자



10,452명

[전주 청년인구인 8%]

신규 주체 비율



68%

영속 연계수



58건

[취·창업, 티치어 청년 유망]

“자기 삶의 주체로 지역에 남습니다”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경험을 토대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역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갑니다.

토론 3

이상적인 자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 동네에서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

이용우
동네야 놀자 사무국장



동네 생활 속 문화는 동네축제, 음악회 그 외 다양한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마을 공동체 동네야 놀자에서도 문화는 주민들과 만나는 중요한 소통의 매개입니다. 마을축제 20년, 바자회10년 그 외 소소하게 청소년 데이와 베란다 콘서트 그리고 노래교실, 민요교실, 마을 합창단과 같은 문화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네야 놀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입니다.

우선 자체사업으로 진행되어지는 활동은 축제와 바자회입니다.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단위들이 모여 우리 동네를 위한 작은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문화예술인을 초대하고 같이 하면서 만들어가는 문화 활동입니다.

이런 경우 동네 안의 문화인도 그 축제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작동하여 공연 예산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공연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활동도 그 단위 자체로 해결하기에 축제를 참여하는 단위도 그 공연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서로서로 응원하며 친밀감을 확인합니다.

그 외 문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베란다 콘서트와 다양한 문화교실입니다. 그런 활동은 문화예술인에게 소소한 경제활동과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사업은 천차만별입니다.

문화교실의 강사비는 시간당 적게는 4만원부터 10만원까지, 공연의 경우 무료부터 50만원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하물며 같은 부평구의 지원 사업만 보더라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지원 다르고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이 다릅니다. 거의 같은 활동인데도 지원부서의 사업에 따라 강사비는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같은 경력 있는 단체인 경우는 지원사업으로 동네에서 활동하는 문화강사를 초대할 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지원받아 이 정도 강사비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초대합니다.

그런 경우 문화강사님들이 거의 이해해 주시지만 가끔 이해가 충돌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 그런 경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공연의 경우는 더 다양합니다. 무료 공연부터 50만원까지 경력과 능력, 인지도에 따라 책정하지만 지원사업의 경우 공연비는 거의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가 전부입니다. 축제를 기획하다 보면 지원금 안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공연비는 부족합니다. 그런 경우 지원금 이외 공연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가끔 지원금도 자부담비도 없을 경우가 있어 우리가 초대하고 싶은 가수를 초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를 하려 하지만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운하지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예술노동자로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활동이 그의 경제 활동의 전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저 자신을 보일 수 있는 무대가 소중하지만 차차 연차가 쌓이면서 그의 가치가 올라가면 동네 안에 소소한 무대는 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동네 안에서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이제 주제에 맞게 상상을 해봅니다.

1. 지역 안에는 생활예술인을 꿈꾸는 사람이 많고 그런 문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단위도 많습니다. (다양한 마을축제, 마을총회, 서회적 경제축제의 장 등등) 그런 다양한 문화 활동을 기획하는 사람들에게 지역 안의 생활예술인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단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을에서 축제를 기획하는 사람들도 좋고 생활예술인도 좋을 테니까요.

2. 그리고 그런 단위는 생활예술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양한 분류로 신청을 받고 그에 맞게 공연을 연결해주면 좋겠습니다.

혹여 기획하는 단체가 사업비가 적을 경우에는 연결해주는 기관이 차액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요? 그럼 보다 더 다양한 생활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고 동네에서도 다양한 예술인을 접할 수 있을테니까요. 물론 이런 경우 운영의 묘미와 기획의 평등이 있어야 겠지요.

막연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생활예술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자신의 꿈을 접고 그저 생계 전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3.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하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 예술인의 길을 꿈꾸고 동네 안에서 보다 더 다양한 문화를 접할수 있을지 않을까요? 그저 상상해 봅니다.

동네 안에서 보다 더 많은 문화를 나누고 소비하게 위해서 ...

토론 4

민간단체의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

유형민
부평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1. 발표자 소개

- 부평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유형민
- 2021년 일사천리 공모사업 수혜
- 2022년 꽤 쓸모 있는 도시실험 공모 진행 중

2. 부평구 문화재단 공모사업을 통하여

- 2021년도는 문화에 대한 의식 없이 공동체 활동으로 접목
- 2022년도는 도시농업과 문화예술을 접목하는 실험적 도전

3. 지원사업 경험과 의식 변화

- 경험이 없던 첫째 보고서류 작성이 피곤, 그러나 쉽게 적응
- 첫째에는 지원사업 예산기준이 사업비(재료비) 중심으로 편성되어 개인이 지출하는 활동실비 보상이 없어 불만족.
- 두 번째 해에는 문화재단에서 편의를 제공하려는 노력과 재단의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생겨 만족하고 있음.

4. 앞으로 바라는 지원 사업 방향

- 지원수혜자(단체 대표)가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실비 보조(교통비, 식대비 등)까지 지원된다면 좋겠지만,
- 지원 사업을 하면서 바라는 점은 지속성임. 귀하게 만난 이웃들과 1회성 사업을 하면 문화의 축척도 한계가 생김.
- 문화재단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표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2~3년 지속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발제 5

인천문화재단 공간지원 사례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 점점점

강혜림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팀 과장



01. 공간을 지원합니다.

문화예술단체공간지원사업

- 2011년 실시
- 시민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단체 지원
- 1개 단체, 1회 연장하여 4년 지원, 임차보증금 지원

생활문화지원사업 <동네방네 아지트>

- 2017년도부터 실시
- 생활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는 공간 운영자 대상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공간당 최대 250만원 지원
- 인천시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 재단의 '작은예술공간'지원사업 등 사업으로 중복지원 불가

01. 공간을 지원합니다.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 창작활동 공간(작업실, 연습실, 사무실)을 운영하는 예술인 및 단체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12개월 간 월 임차료의 50%, 1개소 당 최대 480만원 지원

02.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 <점.점.점.>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사업권역 내 유휴공간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예술그룹 및 단체
- 지원항목 : 공간 임차료, 공간 수선비 및 프로그램 진행비
- 사업권역 : 중구·개항장 일대

■ 지원 내용

- 단체별 지원금 평균 2500만원
- 최대 3년 지원(계속지원 심의 진행 후 결정)
- 지원금 사용 범위 가이드

구분	내용	한정금액 범위
공간임차료	창작공간, 창작소(2개월), 공간수선비	한해 지원금의 최대30%
가별 보조재료비	제작비, 장비임차료, 홍보비, 물품구입비, 인건비 등	한해 지원금의 최대70%
월임 후원재료비	기본 참여자(2인/월)의 월임 기화 후원재료비	

02.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 <점.점.점.>

■ 지원 현황

- 총 13개소 조성 및 운영 중
- 2022년 청년 점점점 사업으로 7개 팀 선정 완료

<점.점.점> 사업권역 및 창작공간 위치



<점.점.점> | 1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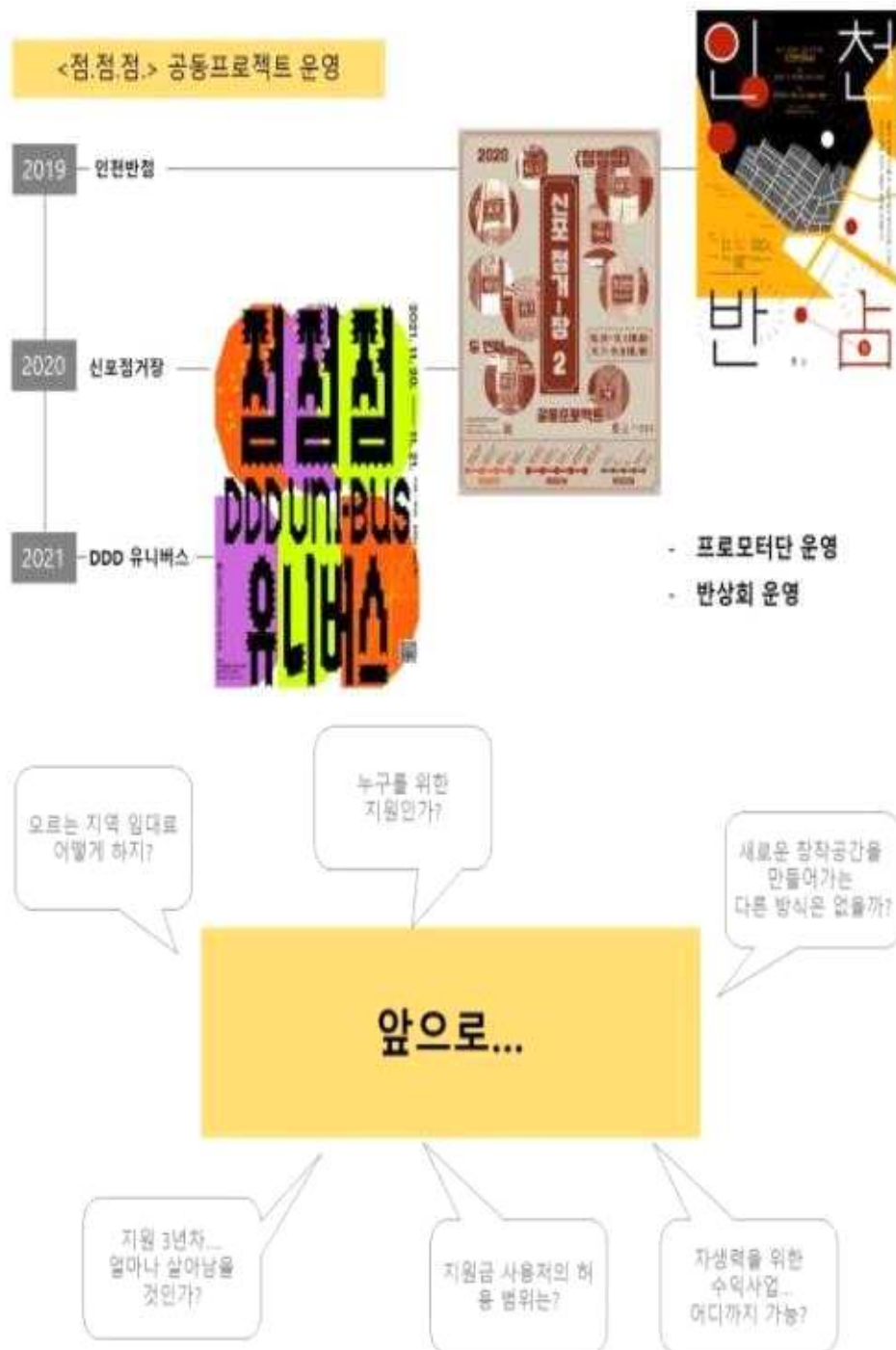


<점.점.점> | 2기



<점.점.점> | 3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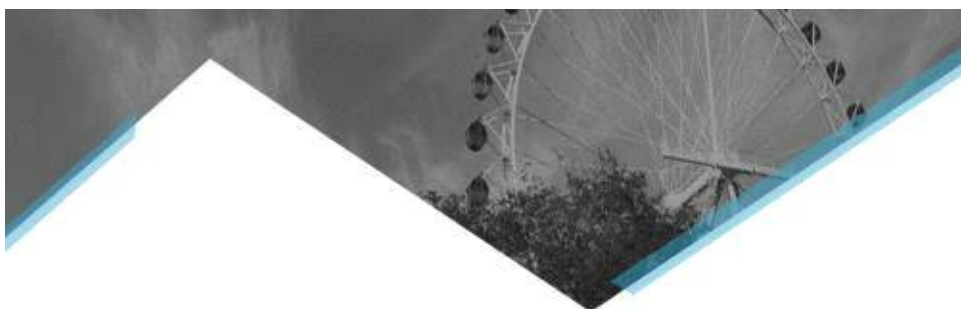


발제 6

인천서구 공간지원 사례 공간거점 주민문화활동 지원사업

최영재
인천서구문화재단 시민문화팀 팀장





- 1 **사업개요**
사업추진개요
모집 및 워크숍 개요
사업목표
- 2 **사업내용**
개별 프로젝트 개요
개별 프로젝트 및 활동내용
워크숍 결과
- 3 **공모내용**
세부모집내용
장르별 예시
예산편성
- 4 **추진결과**
사업추진결과
참여 동아리소개
총평
- 5 **향후추진방향**
지역공간 활성화 및 사회공헌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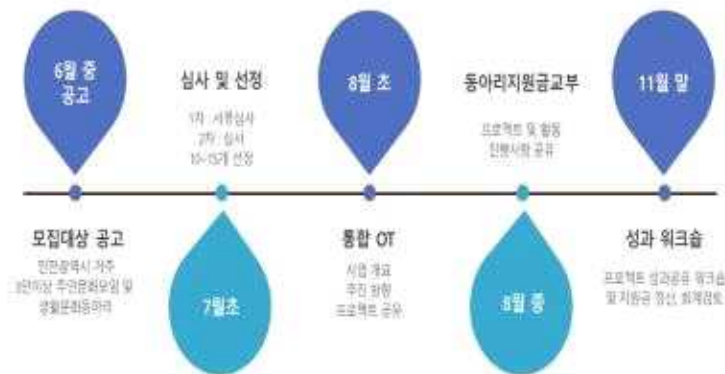
사업추진개요

(재)인천서구문화재단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간거점 주민문화 활동 지원사업



사업개요

모집 및 워크숍 추진개요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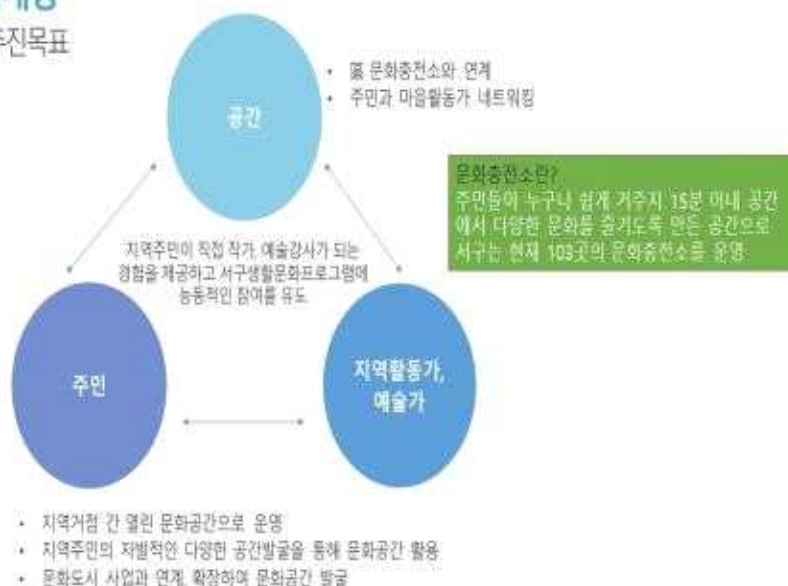
사업추진개요 및 추진방향

(재)인천서구문화재단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간거점 주민문화 활동 지원사업

개요	주민의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생활문화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공간 발굴과 공간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주도의 생활문화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추진방향	✓ 문화주체 발굴 : 주민모임 및 공간발굴, 지역 내 문화 주체를 확대 ✓ 생활문화 확장 : 주민들의 일상적 소규모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에 정주성을 높임 ✓ 네트워킹 : 서로의 생활문화공간을 공유하며 새로운 문화활동의 기회제공

사업내용

사업추진목표



공모내용

세부모집내용

모집대상	지역의 문화공간 발굴하고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활동을 할 3인 이상 주민 또는 생활문화동아리 ❖ 인천서구 거주자 60%이상으로 구성 ❖ 지역주민 활동을 위해 공간개방 의지가 있는 문화공간
모집인원	15개 내외
지원규모	모임(동아리)당 문화활동비용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

※ 생활문화란?

- 1)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2호)
- 2) 예술장르로 구분되지 않는 모든 문화 활동

공모내용

생활문화동아리 장르별 예시



공모내용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예시

문학, 공연, 전시 등	✓ 뜨개질에 재능이 있는 주민A가 동네의 △△공방에서 이웃들과 함께 뜨개질 수세미 만들기 ✓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모여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와 함께 그림책 만들기 활동 ✓ 색소폰동아리가 강사를 섭외하여 □□연습실에서 활동발표 준비 ✓ 미술동아리가 ○○카페를 대관하여 작품전시회 개최
체험 및 캠페인	✓ ○○공간을 거점으로 정기적인 주민모임을 개최하여 동네의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도출하여 주민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투기 장소 화단을 조성하는 캠페인 진행 ✓ 비건문화를 지향하는 주민B가 ▷▷공간에서 이웃들과 함께 채식 식단을 공유하고 동물 성분을 제외한 화장품 만들기 활동을 통해 동물복지, 환경보호 등의 인식을 확산하는 활동 ✓ ▽▽공간에서 반려동물 및 반려식물 관련 정보를 나누고 마음의 휴식을 얻는 활동 ✓ 동네의 작은 공방에서 이웃들과 함께 폐자원을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공모내용

예산편성시 주의사항

- ✓ 감사비 전체 사업비 30% 이내, 임차료(대관료 등) 전체사업비 50% 이내 편성
- ✓ 공간 방역비 전체 사업비 20% 이상 필수 편성
- ✓ 주민모임(동아리) 구성원 인건비 지급 불가
- ✓ 최종 지원금은 심의과정에서 결정
- ✓ 사업종료 시 사업비 정산 및 활동결과보고제출 (정산자료 마비 시 지원금 환수)

코로나 상황에 따라 2021년도는 20% 방역비 필수 편성
2022년도 사업은 5%이내 방역비 편성

※ 그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방법이 생겼으며 방역에 대한 물품출 공간운영자들이 상시 비치해 놓아
2022년도 사업은 5%이내에서 방역비 편성 함.

추진결과 요약

추진결과 2021년(참여동아리16개, 참여인원112명)

연번	동아리명	활동공간	참여인원	활동분야	활동내용	활동지역
1	현암한림	가오저리	3명	생활공예	압착마, 구선, 마요치, 계곡 등 미성을 활용한 생활공예	심곡면회
2	여미인	민들레 학문도서관	3명	미술(회화)	수채화, 유화 등 장기적인 미술 활동 및 전시회 관람	검단
3	참모도	대중마포출	4명	연극	인생 첫 연기를 도전하는 시민배우들이 만드는 연극 '날아버린의 군단' 제작	검단
4	지바고	대중마포출	5명	연극	'인기드라타' '피스타션사인' 을 벤치마킹한 오디오극 '블로등선사인' 제작	검단
5	수목이	문화공간우리	12명	음악 (오쿠합리)	우쿠렐레 수업 및 외부 공연활동	검암중서
6	날카리요	문화공간우리	5명	음악(기타)	기타 수업 및 외부 공연 활동	검암중서
7	노습표	차의 차관	9명	교육 및 체험	그림책을 읽고 형태, 과학, 미술, 전통 놀이 하기	가좌
8	with	가치책이커스	13명	오리	가족과 이웃의 정을 말한스를 위한 '살인드' 함께 만들기	가좌
9	아이미들	서구한송의집	4명	비건문화활동	서구지역 학생들과 함께 비건교육, 채식밥상 체험 및 역사적 단종고 전파하기	석남
10	은나노	법복장가장, 하일교육협동조합	17명	보드게임	서구지역을 활용한 새로운 보드게임 제작	검암중서
11	일출연	대중마포출	4명	생활공예	원터 공예퍼포먼스를 통한 주민 소통과 협정 제법	석남
12	우이	가치책이커스	7명	음악 (오쿠합리)	우쿠렐레 기초 교육 및 연주 연습	가좌
13	여무튼일	나래미생태공원	4명	생활공예	꽃바구니, 꽃다발, 천연염색 스카프 및 술 만들기	가장산면
14	조용이리	노유인교회3점	6명	생활공예	제로웨이스트 생활공예	가장산면
15	올랑	하루화학	3명	음악(합창)	합창리 연주 활동	석남
16	스마일	파한	5명	반려동물	반려동물 키우기 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치유 활동	석남

추진결과 요약

참여 동아리 소개

지바고

연극

- ▶ 활동내용
 - 지역주민들이 직접 역사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동아리
 - 연극드라마 '최소탄산사건'을 소개주하여 발로동전사건이라는 드라마를 오디오극으로 제작
- ▶ 활동결과
 - 목소리 연기가 모디년 전행주인 10명 지원 9명 선정
 - 연극드라마 '최소탄산사건'을 소개주하여 발로동전사건이라는 드라마를 오디오극으로 제작
 - 오디오극 제작 후 찾아뵙게스트 개시

활동사진



추진결과 요약

참여 동아리 소개

은나노

보드게임

- ▶ 활동내용
 - 서구의 문화를 접목하여 지역을 활용한 보드게임 제작
 - 서구 내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특강 진행
- ▶ 활동결과
 - 인천서구 생활문화축제 참여
 - 석남초등학교 보드게임 강의 진행
 -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사진



추진결과 요약

참여 동아리 소개

스며들
반려식물
▶ 활동내용 • 반려식물을 통한 교감과 위로, 공감등의 감정을 공유 • 정미허브, 에델바이스, 몬스테라, 핑크아욱, 누나질트리(로즈마리) 키우기 ▶ 활동결과 • 월4회 반려식물에 대한 느낀점 공유 • 식물들 지역주민에게 나눔활동



사업추진결과

홍보영상촬영 성과공유회

- ◆ 활동 종료 후 동아리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한 동아리 소개 및 공간 소개 홍보영상 제작 후 재단 유튜브에 업로드



사업추진결과

전시회 및 성과공유회

-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동아리 활동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전시회 개최 및 영상 배포

자료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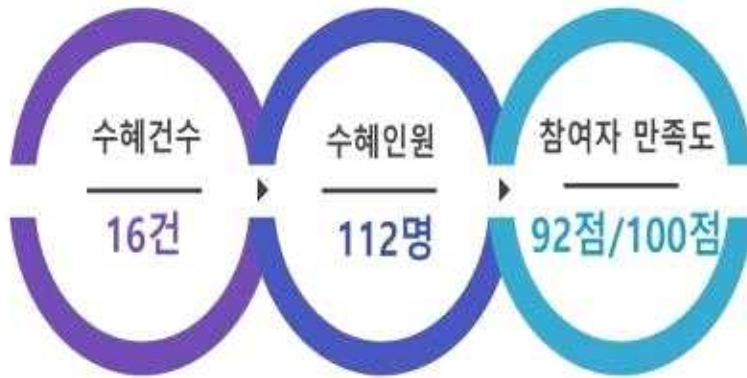
추진결과

2021년 사업 추진 활동 교류<네트워킹>

기간	총 3회
참여인원	총 40명(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공간면적당 인원으로 제한)
주요논의	활동현황 및 활동공간 공유
주요의견	✓ 지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 곳에서 활동하는 동아리간의 네트워킹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지역의 현황을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킹 필요 ✓ 코로나19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비대면 방법 및 전시회 또는 영상 대체 논의

추진결과

2021년 사업 추진 결과



총평

2021년 사업 추진 결과

- ✓ 생활문화동아리(주민모임)간의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임을 정례화하고 다양한 활동교류 프로그램 구성 필요
- ✓ 지원금의 투명한 사용 및 지원금의 정확한 정산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올바른 지원금 사용법과 정산의 목적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회계 전문가 교육 필요
- ✓ 사업참여자들을 위한 온라인 매신저 단체방을 개설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음. 온라인 매신저는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아리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재단의 생활문화사업을 홍보하는 플랫폼으로 확장

향후 추진 방향

지역공간 활성화 및 사회공헌



Appendix

홍보&영상물



토론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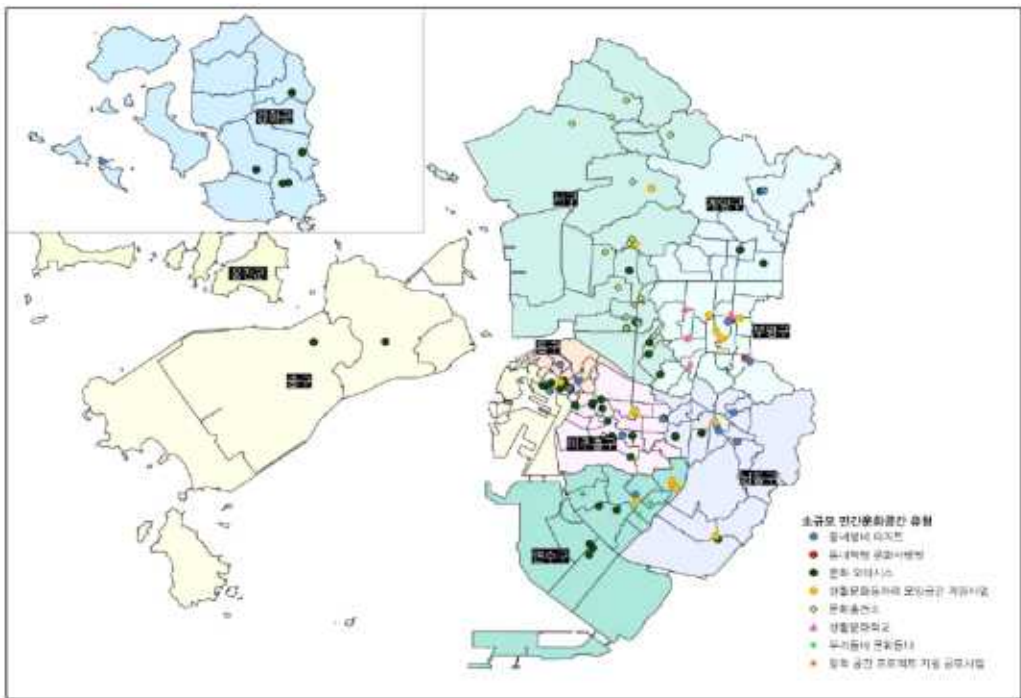
기획자의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

권은숙
생활문화공간 달이네 대표



인천시와 문화재단, 각 지자체의 공간지원사업이 문화도시와 함께 확대, 세분화되고 있다. 지원사업이 양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지역별, 분야별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간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문화를 생산하는 기획자의 입장에서 이름만 바뀐 지원사업엔 더 이상 매력을 느낄 수가 없다. 수년째 공간지원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제시했지만 행정의 속도는 느리고, 신뢰를 쌓지 못한 민.관은 지원 대신 지적이 한몫한다. 공공의 지원사업은 지지와 도움보다,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약 대신 독이 되고 있다. 공적지원을 포기하는 단체들에서 공간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고민을 찾을 수 있으며, 이상적인 지원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천연구원 민간문화공간지원사업 간담회 자료 참조>

지역문화공간들은

1. **형태:** 복합적이고 융합적이며, 다각적인 유형으로 활동
2. **역할:** 문화 예술적 활동과 지역 커뮤니티 역할
3. **기대:** 전문예술창작보다는 지역성을 띤 교류(네트워크)를 통해 일상의 문화향유 및 문화확산

4. 지원방식 및 범위

- 행정의 간편화_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 및 서류의 간소화
- 지원금액의 확대_ 사업 기간에 맞는 지원금액 및 활용범위
 - 공간지원사업으로서 공간 활용과 유지를 위한 운영비에 대한 지원 부재
- 지원대상의 명확성
 - 예술 창작자를 위한 지원인지, 기획자, 청년 창업자를 위한 지원인지 불분명
- 지역, 행정, 문화매개자의 협업 및 역할분담
 - 문화공간의 욕구 파악을 통한 각 지자체(재단, 시.군.구)의 지원에 대한 역할분담
- 지속가능성
 - 년차별 특화된 지원방식 모색
 - 1년차 행정 정산/ 2년차 홍보, 운영인력/ 3년차 지역간 네트워킹
 - 지원 이후의 지속가능한 수익구조의 필요성
- 자율성
 -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평가(평가방식의 고민 필요)를 통해 다각적인 자율성 확보
- 경험과 노하우 공유
 - 유·무형의 자원 재생산
 - 대안적 지원사업 설계 가능

토론 6

예술가의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

강헌구
시인의 사회 대표



1. 강현구_싱어송라이터, 사운드아티스트, 문화기획자

- ◆ 싱어송라이터_문화예술활동 전반에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구축된 이미지. 1st 디지털 싱글 '열우물길'(2016), 1st EP 워터프루프(2022) 등.
- ◆ 사운드아티스트_2018년부터 사운드시스템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다수의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 2018년 인천문화재단 지역특성화사업 삼산해오름공부방, 2021년 부평사운드에피타이저 등.
- ◆ 문화기획자_문화공간거북이밥(서구.2020-2022) 운영. 부평기반해인기획, 인디레이블 시인의사회 대표.



2. ???

- ◆ 예술가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인가.
- ◆ 예술활동을 통한 경제활동은 결국 불가능한가.
- ◆ N잡러로서 예술을 통한 자기실현이 가능한가.
- ◆ 지원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
- ◆ 왜 지원사업은 대표자가 인건비를 받을 수 없는가.
- ◆ 지원사업 기획, 운영, 정산, 결과보고 모두 독박으로 끝내고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 ◆ 지원사업이 끝나고 난 뒤 다시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는 왜 또 문화재단을 기웃거리나.
- ◆ 그래도 순기능을 이야기한다.

3. 지원사업을 통한 작업실현

◆ 예술창작활동

2016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지원금(300만원)

첫 디지털 싱글 열우물길 제작

정산 절차 없음. 창작 계획서 및 결과자료 제출

2018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지원금(300만원)

서울 신촌 인디툰 좋아지다 공연 및 어쿠스틱 기타

구입, 공연 계약서 및 포스터 제출

-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



3. 지원사업을 통한 작업실현

◆ 예술창작활동

2016 인천문화재단 바로 그 지원(100만원)

열우물길 뮤직비디오 제작

- 청년예술가의 창작아이디어에 지원

PPT 발표의 중요성



3. 지원사업을 통한 작업실현

● 예술창작활동

2018 인천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지원(300만원)

3th 디지털 싱글 별면지 음원, 뮤비 제작

· 적은 예산



3. 지원사업을 통한 작업실현

● 예술창작활동

2020 서구문화재단 예술단체활동지원(400만원)

4th 디지털 싱글 전기장판 음원 및 뮤비 제작

· 서구 원도삼 석남동 탐미 율로케이션 촬영

· 지역 확산 노력



3. 지원사업을 통한 작업실현

◆ 공간 기반 지원사업

2020 인천문화재단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1,500만원)

15명 시민참여, 3팀 전문예술멘토 7곡 완성. 유비 5개.

기획비 50만원*2명 가능.



3. 지원사업을 통한 작업실현

◆ 공간 기반 지원사업

인천문화재단 동네방네아지트사업(250만원)

공간활용지원금있음(125만원)



3. 지원사업을 통한 작업실현

● 공간 기반 지원사업

2021 서구문화재단 서곶시민살롱 100만원

활동비지원으로 정산 절차 간소화.



3. 지원사업을 통한 작업실현

● 공간 기반 지원사업

2021 oo문화재단소사업 280만원

보조금 회계처리과장 복합.

① 단원사업추진계획수립(전체계획) → ② 계약제결(원인행위) → ③ 납품 및 검수 → ④ 지출금회계서 작성 및 대외지급 → ⑤ 회계장부정리

보조금 집행 및 증빙서류

[붙임 2] 지출결의서

[붙임 3] 회계장부

[붙임 4] 감사(출연)비 지급 확인서

[붙임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 6] 감사(출연자) 이력서

[붙임 7] 증명 사진 자료

[붙임 8]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및 근무확인서

[붙임 9] 출장결과보고서



3. 지원사업을 통한 작업실현

- ◆ 공간 기반 지원사업
- 2021 부평구문화재단 부평별곳(500만원)
- 회계정산보고, 결과보고 간소화
- 기획비 예산의 15%
- 공간지원금에 대한 고민



4. 고민과 상상

- ◆ 대표자 및 기획자 인건비적정한 **예산배분 필요**
- ◆ 정산 서류의 방대한 양 **간소화 필요**
- ◆ 인천연고, 지역연고 사업의 폐쇄성 **새로운 창작자가 작업할 환경조성**
- ◆ 부평 레지던시 및 예술창작공간 지원사업 부재 **부평에서 머물 시간이 더 늘려야 함**
- ◆ 부평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 부재 **다양한 지역의 이야기 창작물로 표현**
- ◆ 지역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 부재
- ◆ 문화예술 워크샵 부재

메모,
내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공공 지원방식은?

2022 문화도시부평 포럼

발행인	이영훈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편집인	항유경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센터장
총괄	김유정 시민팀 팀장
기획	노수진 시민팀 팀원
발행일	2022년 7월
발행처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21440)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8(십정동)
디자인	그루북스